

“시간을 넘어 때가 왔습니다.”

:: 외관 ::



겨우 꼬트머리를 남겨놓고 육인 흰머리카락은 언뜻보면 뺏뺏하고 푸석하며 곱슬기 없이
곧다.

유난히 하얀 피부가 돋보이고 검은테 안경 너머로 보이는 강렬한 붉은색 눈동자는 무엇도
놀치지 않겠다는 듯 날카롭다.

왼쪽 눈 아래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점이 하나 있다. 먹은 것이 튀었다거나, 잉크가 묻은 것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길다란 양쪽 귀에는 마음대로 해놓은 것처럼 두서없이 피어싱이 꽂혀있다. 가늘게 뺏은 팔다리와 손가락, 자세히 보면 가끔 등성등성 작게 생채기가 나있지만 본인은 크게 아프지만 앓다면 신경 쓰지 않는 듯 하다. 직업병인지 허리에 칼이 없는 날을 세는 것이 더 빠를 정도로 항상 칼을 가지고 다닌다. 마치 옷의 일부처럼 보일 정도.

움직이는 것이 힘들다던가, 더위를 많이 탄다는 등 여러 변명을 하며 원 복식에서 많이 생략한 복장을 하고 있다. 복장은 의외로 스스로 개조한 것. 움직이는 것에 불편한 것은 다 없었다.

:: 이름 ::

멜 / Mell

:: 나이 ::

32세

:: 시열대 ::

시간의 오카리나

:: 성별 ::

남

:: 키/몸무게 ::

170cm

72kg

:: 성격 ::

효율적, 단호함

실패한 경험을 싫어한다.

되는 것은 된다고 말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하며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되도록 자신의 의견을 내세워 일을 해결하려 하지만 의외로 설득이 잘 된다면 쉽게 의견을 바꾸기도 한다.

어쨌든 가장 빠르고 나은 길을 원하는 사람이다.

강박, 신중함

겉으로는 여유롭고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여 항상 자신을 몰아세우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격한 감정을 타인에게 보이지 않으려 애를 쓰며 항상 자신의 행동이 미칠 영향을 생각하고 주의한다.

담백함, 수더분

자신에게만 항상 지나치게 과한 기준을 세워 평가하지만 타인에게는 유하고 벽이 낮다.
하지만 말이 많은 편이 아닌데다, 주로 인상을 쓰는 일이 잦아 크게 티가 나지 않는 편.
본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쉽게 고쳐지진 않는 듯 하다.

집요함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꼭 해내고야 마는 성격.
별 것 아니라 하더라도 은근 욕심이 있어 가끔 이런 면이 있었나 싶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 기사단 내 소속 ::

일반병

:: 포지션 / 필살기 스킬 ::

딜러

필살기: 침묵의 레퀴엠

그의 모든 기억과 경험이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적의 급소에 찢러넣는 강력한 일격 속엔 그가 느낀 슬픔, 분노, 죄책감 등이 사려있을 겁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한 그의 공격을 보고 있다면 섬찝한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 무기 ::

주 무기: 한손검

보조 무기: 방패 없음

:: 스탯 ::

힘: 1 ■■■■■■■■■■ 10

6

용기: 1 ■■■■■■■■■■ 10

10

지혜: 1 ■■■■■■■■■■ 10

4

인내: 1 ■■■■■■■■■■ 10

3

체력: 1 ■■■■■■■■■■ 10

7

:: 기타사항 ::

▷ 양손잡이이다.

▷ 사단장직을 맡고 있다. 스스로의 능력에 꼭 걸맞는 자격이라고 생각한다.

▷ 군단장인 리베라와는 기사단에 들어온 뒤 친해진 사이로 종종 사적으로 만남을 가져 식사를 하거나 가볍게 한 잔을 하기도 한다. 현재는 만나면 마음이 편한 사람이 된 듯 하다.

▷ 여름 태생이다. 잠깐 지냈던 곳도 더운 곳. 추위를 덜 타고 더위를 많이 탄다. 태어난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 배가 지나치게 부르면 움직임이 무뎠다고 해서 잘 먹지 않는 편이다. 기회만 있으면 공복을 채울만큼 무언갈 먹긴 한다. 담백하고 간이 세지 않은 것을 원하는 편.

▷ 왕가를 섬기기 때문에 존댓말이 입에 붙어있다. 어린 사람에게도 가리지 않고 존대를 한다. 반말을 하려면 오히려 불편해 한다. 말투는 뽀뽀하고 또박또박, 말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조심한다.

▷ 주로 밤에 활동해서 눈이 조금 나빠진 편, 안경을 써도 희미할 때가 있는 듯 하다.

▷ 지구력은 좀 약한 편이다. 주로 빠르고 신속하게 일을 처리한다.

▷ 시커족이기 때문에 앞에 나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들키지 않게 숨은 뒤 순간을 노려 한 번에 적을 처리하는 방식을 고수한다. 하지만 그 방법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현재는 다룰 수 없는 무기가 거의 없을 정도이다.

▷ 하이랄 왕가에 헌신하며 왕가의 지숙이 자신의 살아가는 목표이자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전투와 지식도 충분히 쌓아올렸지만 여전히 자신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한다.

▷ 흑시 모를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칼은 항상 소지하고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한다.

좋아하는 것 : 몸을 움직이는 것은 뭐든 / 따뜻하게 데운 우유 / 하이랄 왕가 / 숲
싫어하는 것 : 하이랄을 위협하는 모든 것 / 게으른 사람 / 단 음식

:: 선관 ::
없음